문, 민주당 중심 대화합 주창

광주·전남지역 핵심당원·원로 만나 전폭 지지 호소

문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향한 구애전을 본격화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명칭인 '문재인 담쟁이 선거캠프' 1차 회의에서 "우리 당의 대화합을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초기 있었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인한 분열의 상처를 씻어내고 아직도 우리 당에 남아 있는 호남, 비호남,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와 같은 분열의 프레임을 깨끗하게 극복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가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대화합을 위한 과제는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우선 분당의 상처를 얘기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구(舊) 민주당이 구태정치로 비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받은 자존심의 상처와 배신감을 다독여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선대위 회의를 마친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의 만남' 행사를 한 뒤 오후 늦게 광주로 내려가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우선 오후 7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핵심당원 및 원로들과 만나 자신이 민주당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수권능력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에도 불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 또 오후 9시에는 나주를 방문해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문 후보는 광주에서 1박 한 뒤 28일에는 5·18민주화운동 유족들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국립5·18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들렀다가 고향인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문 후보가 이처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진정성을 보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호남 푸대접'의 중심에 있었던 친노 핵심세력이 여전히 당과 캠프에서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구애'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 후보는 28일 밤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휴 기간 내내 부산과 인근 지역에 머물 예정이다.

우선 양산의 자택에서 차례를 지내고 선친 묘소에 성묘한 뒤 모친이 사는 부산 영도와 지역구인 부산 사상을 찾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안철수 한가위 호남민심 잡기

18대 대통령 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추석 연휴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7일 동시에 광주를 찾았다. 이처럼 야권 단일화 대상인 두 후보가 이날 동시에 광주를 찾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호남 지지층 확산을 통해 야권 단일화에서 이기고 나아가 연말 대선에서 승리, 정권 교체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다.

안, 여수 처가 방문 인연 강조

장인·장모께 추석명절 인사…"엑스포 성공 축하"도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처가가 있는 여수를 방문했다. 김 교수는 여수에서 태어나 여수여고를 나왔다. 안 후보의 호남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전인 지난 14일 광주 5·18 국립묘역 참배 이후 이달에만 두 번째다.

호남은 야권 단일화의 최대 승부처로 평가되는 만큼 안 후보의 이날 방문은 대권 전략상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안 후보 측은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과 장인·장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미 여수에서는 며칠 전부터 안 후보의 방문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여수 방문이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안 후보는 처가 방문 길에 위치한 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만나서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등 현지 민심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명절을 맞아 처가에 인사드리러 왔다"며 "여수세계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태풍피해가 크지만 여수시민들이 지혜롭게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장인 김우현씨와 장모 송복자씨에게는 "큰 일을 결정해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어렵게 출마를 결심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여수 방문 후 곧바로 상경, 캠프 사무실에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면담했다. 장 교수는 재벌의 사회·경제적 의무를 강조하고 소액주주 운동을 이끈 경영학계의 진보적 학자다.

한편,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2억원 이상 낮춰 신고(다운계약서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합법적인 절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정신으로 새정치 실천 문재인과 동행해 주십시오"

광주·전남지역민에 한가위 편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민께 짧은 편지글을 올려 주목을 끌고 있다.

문 후보는 27일 '문재인과 동행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라도는 대한민국에서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동안 그 깊은 상처를 속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호남은 저를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 주셨다. 죄송하고 감사드리며 정권 교체를 위해 달려 가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광주가 주신 믿음, 호남이 주신 소명을 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진심을 담은 작은 실천이 결국 진실을 만들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벽은 우리의 손을 맞잡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광주정신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희망을 향해 가는 정치에 동행해 달라"며 "문재인은 호남의 열망과 바람을 실현시키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정국현안 숙고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 탈당파 신당창당 착수

통합진보당 탈당파인 새진보정당추진회의가 27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착수했다.

새진보정당추진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중 과도적 성격의 정당을 우선 창당하고 대선을 마친 후 2013년 노동진보진영을 비롯한 제 세력과 함께 명실상부한 진보대표정당을 창당해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월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친 후 10월21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1단계 창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창당 완료는 대선 이후인 2013년에 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떤 경우라도 역사의 죄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은 막아야"

민주, 과거사 관련 박근혜 공세 강화

민주통합당은 27일 과거사를 연결고리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역사의 죄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변인에서 사퇴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박 후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한 뒤 "'본변인'을 살리기 위해 대변인을 차버렸는데 박근혜 인사를 보면 박정희 인사가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내 이런 역사의 죄인을 응징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박 후보가 (24일) 오전에는 5·16, 유신, 인혁당 사건에 사과하고 오후에는 말춤을 췄다"며 "과거사를 사과했으면 그 유족들이나 역사 앞에 오후만이라도 근신하면서 진정 어린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후보의 사과 발언과 관련,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힘으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며 "박 후보가 유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안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을 중심으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